

리상과 자신심의 높이

202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몰라보게 전변된 피해복구지역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구를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정말 장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하나하나의 건축물들마다에 진함없는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을 우리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그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에 일군들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후더워졌다.

몹소 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에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우리 청년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힘한 건설현장을 찾고찾으시며 청년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떠나 어찌 오늘의 성과에 대하여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이윽고 뜨거운 걱정속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단순히 공학적, 력학적계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리상의 높이, 그것을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는 자신심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일떠선 건축물들은 땅을 받드는 우리 청년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애국심의 결정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리상의 높이, 자신심의 높이!

정녕 이 말씀에는 드높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기 힘을 믿고 산악같이 떨쳐나설 때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걱정의 웨침이 세차게 울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기적을 안아올수 있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